

2026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자가진단

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자가진단지

- 본 자가진단은 신청기업의 컨설팅 수행여건 및 니즈를 확인하고 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유형으로 안내함으로써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. 본 설문은 정답이나 오답이 없으며 컨설팅 심사 및 선정, 그리고 향후 실제 수행유무와는 무관하니, 담당 컨설턴트가 귀하의 사업장 컨설팅 수행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히 응답하여 주십시오.

Q1. 컨설팅 신청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? (복수선택가능)

- ① 경영진 (대표이사, 임원)
- ②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
- ③ 근로자
- ④ 인사담당자 또는 인사부서
- ⑤ 고용노동부 관계자 (예: 근로감독관, 지방부처 주무관 등)
- ⑥ 외부 전문가
- ⑦ 기타()

Q2.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 및 문제(당면과제)는 무엇입니까?

- ① 조직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함
- ②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존재하여 신청함(예: 법률위반 시정지시 등)
- ③ 기업의 성장(예: 매출 및 조직규모 증가)으로 인해, 인사 제도를 개편할 필요를 느낌
- ④ 기업의 불황(예: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)으로 인해, 인사 제도를 개편할 필요를 느낌
- ⑤ 기타()

Q3. 컨설팅을 통해 응답자께서 기대하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?

- ① 노동법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, 발견된 문제에 대한 개선안 확인
- ② 노동법 위반 사항이 존재하여, 그에 대한 빠른 조치(시정)방안 수립
- ③ 회사의 인사 시스템(예: 임금, 평가, 교육 등) 전반에 걸쳐 문제 진단 및 개선점 탐색
- ④ 회사의 인사 시스템(예: 임금, 평가, 교육 등) 중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제도 설계
- ⑤ 회사의 인사 시스템(예: 임금, 평가, 교육 등) 중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개선
- ⑥ 기타()

Q4. 만약 컨설팅을 진행한다면, 문제(당면과제) 해결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?
① 1개월 (약 4주) 내
② 2개월 (약 7주) 내
③ 3개월 (약 12주) 내
④ 4개월 이상 (약 17주)
⑤ 기타()

Q5. 만약 컨설팅을 진행한다면, 현재 귀사의 상황 상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'운영방식'은 무엇입니까?
① 컨설턴트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전적으로 수행
② 컨설턴트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자, 임원, 컨설팅 관리책임자 등 소수의 관련 업무인력이 검토 후 수정하여 제도설계 및 컨설팅 진행
③ 컨설턴트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팀이 검수 후 수정하여 제도설계 및 컨설팅 진행
④ 디자인팀과 매주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설계 및 컨설팅 진행
⑤ 기타()

Q6. 만약 컨설팅을 진행한다면, 현재 귀사의 상황 상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'회의주기'는 무엇입니까?
① 1개월 간격으로 1회
② 2주 간격으로 1회
③ 1주 간격으로 1회
④ 1주 간격으로 1회 이상
⑤ 기타()

Q7. 만약 컨설팅을 진행한다면, 프로젝트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 가능한 '총 인원'은 몇 명입니까?
① 1명
② 2명
③ 3명
④ 4명 이상
⑤ 기타()

Q8. 귀사의 문제(당면과제)와 관련하여, '경영진(대표이사 및 임원)'은 어떤 입장에 가깝습니까?

- ① 현재 당면과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른다
- ② 현재 당면과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으나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다
- ③ 현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편은 아니지만 관심이 크지 않다
- ④ 현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과정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호의적인 편이다
- ⑤ 현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과정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다
- ⑥ 기타()

Q9. 귀사의 문제(당면과제)와 관련하여, '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'는 어떤 입장에 가깝습니까?

- ① 현재 당면과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른다
- ② 현재 당면과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으나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다
- ③ 현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편은 아니지만 관심이 크지 않다
- ④ 현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과정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호의적인 편이다
- ⑤ 현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과정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다
- ⑥ 기타()

Q10. 귀사의 문제(당면과제)와 관련하여, '근로자'들은 어떤 입장에 가깝습니까?

- ① 현재 당면과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른다
- ② 현재 당면과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으나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다
- ③ 현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편은 아니지만 관심이 크지 않다
- ④ 현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과정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호의적인 편이다
- ⑤ 현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 지원과정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다
- ⑥ 기타()

Q11. 귀사의 문제(당면과제) 해결을 위해 컨설팅 외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? (복수응답가능)

- ① 해당없음
- ② 금전적 자원 확보
- ③ 경영진(대표이사, 임원 등) 설득
- ④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 설득
- ⑤ 근로자 설명회
- ⑤ 상급 기관(계열사 모기업, 주요 고객사 등) 설득
- ⑥ 기타()

Q12. 컨설팅 수행을 위한 '자료'를 보유하고 있습니까?

※ 컨설팅 수행을 위한 자료란? 기업이 일·가정 양립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, '유연근무제 규정 및 신청양식 등'을 의미함.

- ① 컨설팅 수행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
- ② 컨설팅 수행을 위한 자료가 거의 없다
- ③ 컨설팅 수행을 위한 자료가 부분적으로 없다
- ④ 컨설팅 수행을 위한 자료는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
- ⑤ 컨설팅 수행을 위한 자료가 있으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
- ⑥ 기타()

Q13. 보유한 자료는 실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?

※ 자료와 실제 운영의 차이란? 유연근무제 규정은 있으나, 실제로 사용이 불가하여 보유한 자료가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.

- ① 해당 없음 (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보유한 자료가 없다)
- ② 보유한 자료의 내용과 실제 운영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
- ③ 보유한 자료의 내용과 실제 운영은 완전히 다르다
- ④ 보유한 자료의 내용과 실제 운영은 일부 차이가 있다
- ⑤ 보유한 자료의 내용과 실제 운영은 동일하다
- ⑥ 기타()

Q14. 컨설팅 수행을 위한 자료를 컨설턴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?

- ① 자료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
- ② 자료는 경영진의 허가를 득해야만 제공할 수 있다
- ③ 일부 민감한 자료의 경우, 경영진의 허가를 득해야 제공할 수 있다
- ④ 컨설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컨설턴트에게 제공할 수 있다
- ⑤ 컨설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컨설턴트에게 제공할 수 있다
- ⑥ 기타()

Q15. 컨설팅 신청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. (1순위, 2순위, 3순위 선택)		
1순위	2순위	3순위
드롭박스 선택	드롭박스 선택 (1순위에서 선택한 항목은 노출X)	드롭박스 선택 (1,2순위에서 선택한 항목은 노출X)
<드롭박스 항목(①~⑫)>		
①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(최신법령 및 개정사항 등)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.		
② 우리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다.		
③ 우리 회사의 현황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 싶다.		
④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.		
⑤ 취업규칙 등 필요한 내부규정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의 규정을 최신화하고 싶다.		
⑥ 인사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싶다.		
⑦ 인사관련 제도 등 내부제도의 운영방식을 다시 편성하고 싶다.		
⑧ 인사관련 제도 등 내부제도의 운영방식을 고도화(업그레이드)하고 싶다.		
⑨ 일하는 방식(일터혁신, 노사상생 등)과 관련된 심도 있는 종합컨설팅을 받고 싶다.		
⑩ 주4.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워라벨 향상에 관심이 있으며,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.		
⑪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제도에 대한 법적 리스크 진단에 관심이 있으며, 적정성을 검토하고 싶다.		
⑫ 노사관계 활성화 또는 조직문화 개선에 관심이 있으며, 개선방향을 탐색하고 싶다.		

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